

2023. 2.

---

# 2022년 4/4분기 김해지역 고용동향 조사

---

# 1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김해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사유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한 분석
  - 고용행정통계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 인 근로자
- ※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

## □ 조사기간

- 2023. 1. 25(수) ~ 1. 31(화) (주말제외 5일간)

## □ 조사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수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 김해지역 피보험자 현황

- 2023. 1. 25 ~ 1. 31(주말제외 5일간) 까지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바탕으로 ‘2022년 4분기 김해지역 고용동향’ 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김해지역 상시근로자(이하 근로자) 수는 136,902명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66명(2.60%) 증가, 직전 분기 대비 123명(0.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11.43%), ‘10인 이상 100인 미만’ (4.02%), ‘10인 미만’ (0.02%) 사업장 순으로 전년 동기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0.16%) 사업장에서는 감소하였음.

### <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규모	‘21년 12월	‘22년 12월	증▲감	증감률
합 계	133,436	136,902	3,466	2.60
10인 미만	49,168	49,177	9	0.02
10인 이상 100인 미만	56,685	58,963	2,278	4.0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7,026	16,998	▲28	▲0.16
300인 이상	10,557	11,764	1,207	11.43

- 업종별로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보건, 사회복지업’ (6.04%), ‘도, 소매업’ (2.20%), ‘제조업’ (1.30%) 등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반면, ‘운수, 창고업’ (▲0.66%), ‘협회, 단체’ (▲8.43%) 등은 감소하였음.

〈 업종별 근로자 수 현황(전년동기 대비) 〉

(단위 : 명, %)

업종 \ 구분	‘21년 12월	‘22년 12월	증▲감	증감률
<b>합 계</b>	<b>133,436</b>	<b>136,902</b>	<b>3,466</b>	<b>2.60</b>
정보통신업	1,028	1,203	175	17.02
수도하수재생업	1,269	1,471	202	15.92
숙박, 음식점업	4,798	5,202	404	8.42
예술, 스포츠	973	1,042	69	7.09
전문, 과학, 서비스업	4,071	4,326	255	6.26
보건, 사회복지업	17,041	18,070	1,029	6.04
건설업	4,987	5,274	287	5.75
부동산업	3,338	3,498	160	4.79
전기가스공급업	243	254	11	4.53
사업시설관리	3,379	3,473	94	2.78
도, 소매업	10,079	10,301	222	2.20
농, 임, 어업	490	497	7	1.43
<b>제조업</b>	<b>68,535</b>	<b>69,429</b>	<b>894</b>	<b>1.30</b>
교육서비스업	4,562	4,569	7	0.15
운수, 창고업	2,579	2,562	▲17	▲0.66
금융, 보험업	1,351	1,330	▲21	▲1.55
공공행정	1,699	1,663	▲36	▲2.12
협회, 단체	2,905	2,660	▲245	▲8.43
광업	109	78	▲31	▲28.44

- 직전분기 대비 ‘부동산업’ (2.01%), ‘제조업’ (0.50%) 등에서는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 ‘도, 소매업’ (▲0.56%), ‘교육서비스업’ (▲1.32%), ‘사업시설관리’ (▲2.14%) 등은 감소되어 나타남.

〈 업종별 근로자 수 현황(직전분기 대비) 〉

(단위 : 명, %)

업종 \ 구분	‘22년 9월	‘22년 12월	증▲감	증감률
합 계	137,025	136,902	▲123	▲0.09
농, 임, 어업	430	497	67	15.58
부동산업	3,429	3,498	69	2.01
정보통신업	1,180	1,203	23	1.95
협회, 단체	2,638	2,660	22	0.83
숙박, 음식점업	5,160	5,202	42	0.81
전기가스공급업	252	254	2	0.79
전문, 과학, 서비스업	4,298	4,326	28	0.65
제조업	69,082	69,429	347	0.50
건설업	5,256	5,274	18	0.34
보건, 사회복지업	18,062	18,070	8	0.04
수도하수재생업	1,472	1,471	▲1	▲0.07
금융, 보험업	1,335	1,330	▲5	▲0.37
도, 소매업	10,359	10,301	▲58	▲0.56
운수, 창고업	2,585	2,562	▲23	▲0.89
예술, 스포츠	1,054	1,042	▲12	▲1.14
교육서비스업	4,630	4,569	▲61	▲1.32
사업시설관리	3,549	3,473	▲76	▲2.14
공공행정	2,153	1,663	▲490	▲22.76
광업	101	78	▲23	▲22.77

- 제조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10%) 등은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 ‘전기장비 제조업’ (▲1.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1.48%)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제조업종 근로자 수 현황(전년동기 대비) 〉

(단위 : 명, %)

구분 제조업	‘21년 12월	‘22년 12월	증▲감	증감률
합 계	68,535	69,429	894	1.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05	1,381	176	14.6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582	7,386	804	12.22
음료 제조업	23	25	2	8.7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45	2,053	108	5.5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2	139	7	5.3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2	402	20	5.24
가구 제조업	521	548	27	5.18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9	104	5	5.0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771	13,167	396	3.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42	1,279	37	2.9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54	1,584	30	1.93
기타 제품 제조업	1,265	1,286	21	1.6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717	14,889	172	1.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77	1,088	11	1.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91	8,137	46	0.5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902	905	3	0.33
전기장비 제조업	4,204	4,148	▲56	▲1.33
식료품 제조업	4,096	4,029	▲67	▲1.64
1차 금속 제조업	1,360	1,328	▲32	▲2.3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8	115	▲3	▲2.5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93	188	▲5	▲2.5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10	1,545	▲65	▲4.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185	2,965	▲220	▲6.9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61	738	▲523	▲41.48

- 직전분기 대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8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8%) 등은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3%), ‘전기장비 제조업’ (▲1.24%)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

< 제조업종 근로자 수 현황(직전분기 대비) >

(단위 : 명, %)

구분 제조업	‘22년 9월	‘22년 12월	증▲감	증감률
합 계	69,082	69,429	347	0.5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1	115	4	3.6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220	7,386	166	2.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85	905	20	2.26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2	104	2	1.9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028	2,053	25	1.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30	738	8	1.10
1차 금속 제조업	1,317	1,328	11	0.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060	13,167	107	0.8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8	139	1	0.7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82	8,137	55	0.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72	1,381	9	0.6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83	1,088	5	0.46
식품 제조업	4,012	4,029	17	0.4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843	14,889	46	0.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41	1,545	4	0.2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81	1,584	3	0.19
가구 제조업	551	548	▲3	▲0.54
기타 제품 제조업	1,294	1,286	▲8	▲0.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02	2,965	▲37	▲1.23
전기장비 제조업	4,200	4,148	▲52	▲1.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98	1,279	▲19	▲1.4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12	402	▲10	▲2.4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93	188	▲5	▲2.59
음료 제조업	27	25	▲2	▲7.41

### 3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수

□ 김해지역 취업 및 퇴직자 현황

○ 취업 및 퇴직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분기 취업자 수는 16,5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1% 상승했는데, 이는 신규 취업자 수는 7.47% 상승, 경력 취업자 수는 0.83% 감소하여 나타난 수치임.

- 취업자 중 제조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76% 감소

※ '22년 3분기 대비 취업자 수 3.21% 감소

※ '22년 3분기 대비 제조기업 취업자 수 5.93% 증가

< 업종별 신규 취업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업종	'21년 4분기	'22년 4분기	증▲감	증감률
합계	1,875	2,015	140	7.4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2	1	1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7	3	75.00
부동산업	9	15	6	66.6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0	51	11	27.50
정보통신업	33	42	9	27.27
제조업	818	1,038	220	26.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	45	8	21.62
숙박 및 음식점업	321	361	40	12.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	49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3	115	▲18	▲13.53
도매 및 소매업	199	157	▲42	▲21.11
운수 및 창고업	13	9	▲4	▲30.77
건설업	38	26	▲12	▲31.58
교육 서비스업	76	52	▲24	▲31.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	16	▲16	▲5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	23	▲30	▲56.60
농업, 임업 및 어업	14	6	▲8	▲57.14
금융 및 보험업	5	1	▲4	▲80.00

< 업종별 경력 취업자 현황 >

(단위 : 명, %)

업종 \ 구분	'21년 4분기	'22년 4분기	증▲감	증감률
<b>합 계</b>	<b>14,669</b>	<b>14,547</b>	<b>▲122</b>	<b>▲0.83</b>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	8	5	166.67
부동산업	341	416	75	21.9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08	496	88	21.57
건설업	671	794	123	18.33
숙박 및 음식점업	952	1,097	145	15.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80	2,344	264	12.6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7	128	11	9.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2	164	12	7.89
정보통신업	236	254	18	7.63
농업, 임업 및 어업	254	264	10	3.94
금융 및 보험업	28	29	1	3.57
운수 및 창고업	189	195	6	3.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2	285	3	1.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0	443	▲17	▲3.70
<b>제조업</b>	<b>6,367</b>	<b>5,949</b>	<b>▲418</b>	<b>▲6.57</b>
도매 및 소매업	1,399	1,271	▲128	▲9.15
광업	13	9	▲4	▲30.77
교육 서비스업	431	291	▲140	▲32.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6	110	▲176	▲61.54

○ '22년 4분기 퇴직자 수는 16,40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20% 감소하였고 직전분기 대비 0.15% 감소하였음.

퇴직 사유별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65.42%), '계약만료, 공사종료' (17.35%),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퇴직 사유별 현황 >

(단위 : 명, %)

퇴직 사유	구분	퇴직자 수	비율
총 퇴직자 수		16,408	100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0,734	65.42
계약만료, 공사종료		2,847	17.35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864	11.36
폐업, 도산		267	1.6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228	1.39
이중고용		146	0.89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28	0.78
정년		93	0.57
분류불능		53	0.32
고용보험 비적용		48	0.29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진행

- 끝 -